

원기100년 후 익산 전법성지의 교단사적 의미

–전법성지 익산의 역사 문화적 배경–

최완규(전북문화재연구원 이사장)

- I . 머리말
- II. 왕도 익산의 역사와 문화
 - 1. 왕도 익산의 전통세력
 - 2. 왕도 익산의 완전성
- III. 미륵사 창건과 왕도익산
 - 1. 미륵사 현황
 - 2. 미륵사의 새로운 해석
 - 3. 미륵사 창건배경 및 의의
- IV. 미륵신앙과 전법성지 익산
 - 1. 미륵신앙의 역사적 전개
 - 2. 원불교와 미륵사상
 - 3. 왕도 익산과 원불교
- V . 맺음말

I . 머리말

한국 고대사에서 익산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 지역이 오래전부터 마한과 백제의 고도로

서 기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고학이나 미술사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는 결출한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미륵사지는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이유로는 서원의 석탑 해체작업을 하기 이전까지 1400여년 동안 위용을 자랑하면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9년 석탑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사리장엄은 백제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은 물론, 왕도로서 익산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다.

발굴조사를 통해본 결과 미륵사의 규모에서 보듯이 백제의 국력을 총동원해 조영되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수도로 알려진 공주 부여가 아닌 익산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익산이 백제 무왕대 수도였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륵사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3개의 사찰을 한데 묶어 놓은 듯한 3원식 가람배치에 있다. 이러한 가람배치는 세계적으로 유일하며 그 독창성을 자랑한다. 이와 더불어 서동과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로 전개되는 연기 설화에서 나타나 있듯이 미륵사의 창건은 미륵하생신앙을 실천하고 이곳에 용화세계를 구현하고자 했던 백제인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곧 백제의 새로운 희망의 땅인 익산에 미륵사 건설을 통하여 당시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미륵신앙을 방편으로 백제 중흥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담론들은 원불교의 미래관이며, 이상세계의 제시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종사께서 천여래 만보살을 모으시고 일원의 심인을 찍도록 해 주셨으며, 주세불이 법력으로 제생 의세의 큰 경륜을 펼치고 열반한 곳이 바로 익산이란 점에서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법성지 익산의 역사성에 대하여 먼저 소개하고, 미륵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법성지로서 익산이 가지는 역사 문화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일개 고고학도로서 단견만으로 종교사상을 접근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II. 왕도 익산의 역사와 문화

1. 왕도 익산의 전통세력

마한에 대한 문헌기록은 3세기 중엽의 중국 역사서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아주 간략하게 기록된 이래,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후대의 사서에 그 내용이 전해 오고 있다. 문헌을 통해서 보면 마한은 기원전 3세기경에 성립되었고, 4세기 중엽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서 백제에 복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백제의 고지에서는 6세기까지 마한의 분묘들이 축조되고 있어 정치와 별개로 문화적인 전통은 더욱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익산과 관련된 마한에 대한 기록은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의 난을 피해 정치적 망명지로 익산지역을 택해 내려온 내용에서 비롯된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고려시대 이후의 사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금마를 지칭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 문헌기록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익산지역에는 한강이남에서 최초로 철기문화의 유입을 말해주는 유적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데, 그 공간적 범위는 미륵산에서 모악산에 이르는 널따란 평야지대이다. 대표적으로 익산 팔봉동 이제유적, 신동리, 평장리, 다송리, 오룡리, 완주 갈동, 전주 여의동, 중화산동, 중인리 등 인데, 모두 분묘 유적이다. 이들 토광묘에서 출토된 유물의 조합상은 세형동검을 비롯한 청동 무기류와 동경과 같은 의기류, 동사와 동착 등 청동 공구류, 그리고 철부, 철사, 철검 등 철기 농공구류와 토기류로는 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등

토기류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적간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각기 집단 내에서는 커다란 위계차는 보이지 않지만 집단간의 위계차는 확인된다. 또한 규모에 따른 위계와 더불어 출토유물에서도 그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다¹⁾.

일찌기 김원용 선생은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60km 이내에 분포되어 있는 청동유물 출토유적에 주목하여 “익산 문화권”으로 설정한 바 있다²⁾. 그리고 금강, 만경평야가 마한의 근거지이며 익산지역 청동기인들은 후에 마한인으로 발전하는 이 지역의 선주민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충청, 전라지역의 청동유물과 공반되는 철기의 성격을 마한사회의 소국성립과 관련짓고 그 배경에는 서북한지방의 정치적 파동과 관련된 주민이동에서 비롯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준왕의 남천 사건을 예시하고 있다³⁾. 이와 더불어 갈동 유적의 절대연대편년 자료가 참고가 될 것인데, 보정년대 값을 통해본 상한은 B.C 250년, 중심연대는 B.C 190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완주 갈동, 익산 신동리, 전주 중화산동과 중인리의 목관묘와 토광직장묘는 준왕의 남천과 관련되는 집단들로 상정할 수 있다. 결국 고조선 준왕의 남천지로서 익산과 전주, 완주지역을 지목할 수 밖에 없는데⁴⁾ 서북한지역의 토광묘들과 직접 연결되는 목관묘나 토광직장묘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군집내에서 계층성마저 확인되기 때문에 마한사회에서 정치 문화적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북한 지역에서 이입되어온 토광묘 문화와 그 다음 단계에서 등장하는 주구묘 계통의 분묘와는 그 구조적 속성이나 출토유물에서 전혀 달

1) 갈동에서는 무기류, 의기류 등이 풍부하게 매납되어 있지만, 중화산동이나 중인리에서는 세형동검의 봉부편만을 부장하고 있기도 하여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2) 김원용, 1977, 「익산지역의 청동기문화」, 『마한·백제문화』 2집,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 전영래, 1990, 「마한시대의 고고학과 문현사학」, 『마한·백제문화』 12집.
이현혜, 1984, 『삼한사회형성사연구』, 일조각.

4) 고조선 준왕의 남천 지역으로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는 익산지역을 지목하여 기록하고 있다.

라 연속성을 찾을 수 없는데, 현재로선 고고학적인 자료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런데 「三國志」나 「後漢書」 등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고조선 준왕이 마한을 공파하고 한왕이 되었으나 그 후 절멸했다는 기사가 주목 된다⁵⁾. 이 두 사서에서 공통적으로 준왕 이후의 연속적 관계가 아니라 전자는 오히려 한(마한)인에 의해서 제사가 받들어지거나 그들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곧 토광묘의 문화내용을 준왕의 남천과 관련시켜 볼 때 이후 단계 사이에 분묘문화의 단절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사가 아닌가 볼 수 있다. 결국 철기문화를 가지고 온 집단은 재지세력이 아닌 외래계 세력으로 얼마간 우월적 존재로 있었지만, 강한 토착문화의 전통이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마한전통의 문화를 유지해 나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철기문화를 수용해 마한의 정치 문화 중심지가 되었던 익산지역에서는 백제 영역화 이후에도 백제의 분묘를 수용하지 않고 마한 전통의 분묘를 고수하면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익산 영등동, 율촌리, 모현동, 간촌리, 완주 상운리, 전주 장동, 마전 유적 등의 분구묘 유적으로 마한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분묘와 같은 시기이지만 금강유역의 입점리나 웅포리 등의 유적에서는 백제 분묘가 수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금강유역이 백제의 대외관문이 되는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일찍이 백제의 중앙문화가 진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⁶⁾. 그렇지만 백제 무왕대에 익산에 천도가 이루어지면서 전 지역에 백제 중앙묘제인 석실분이 비로소 등장하게 된다. 결국, 다른 유적에 비해 전통성과 보수성이 매우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묘 유적을 통해서 보면, 익산지역의 선조들은 마한 고도의 주민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전통을 이어 갔

5) ①三國志 東夷傳 韓傳 「侯準既僭號稱王爲燕亡人衛滿所攻奪將其左右宮人走入海居韓地自號韓王其後絕滅今韓人猶有其祭祀者..」

②後漢書 東夷傳 漢傳 「初朝鮮王準爲衛滿所破乃將其餘衆數千人走入海攻馬韓破之自立韓王準後絕滅馬韓人復自立爲辰王..」

6) 최완규, 1997, 『금강유역 백제고분의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으며, 백제 무왕대에 왕도 주민이 되어서야 비로소 백제 분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사』에서 금마군을 본래 마한국이라고 기록한 이후 후대의 많은 사서에서는 백제와 관련된 기사보다는 마한과 관련지어 익산을 설명하고 있다. 즉, 문헌기록 역시 익산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의 역사인식에 스스로 마한인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내려 왔다고 확신한다. 다시 말하면 백제를 마한이라고 표기한 것이 誤記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인식에 근거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2. 왕도 익산의 완전성

백제 왕도인 공주, 부여, 익산지역은 천도와 관련해 각각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그에 따라 도성의 구조나 그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백제의 왕도에는 그 근간을 이루는 왕궁, 성곽, 사찰, 능묘, 제사유적 등이 잘 갖춰져 있었을 것이나 왕도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점차 멸실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산업화와 더불어 그 경관마저도 크게 훼손되어 왔다. 그러나 익산지역은 백제 왕도 가운데 고대 동아시아 도성의 필수요소인 왕궁, 사찰, 능묘, 관방유적 등과 더불어 자연경관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온 지역이다. 따라서 익산지역의 백제사상 위치를 백제 무왕대의 천도론을 비롯하여 별도, 별부, 천도계획지, 익산 경영설, 이궁, 행궁설, 심지어 신도 등 백가쟁명식의 견해가 표출되어왔다.

먼저 백제는 물론 삼국 가운데 유일한 익산의 왕궁유적⁷⁾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지형에 남-북방향의 구릉은 삭토하여 평坦하게 조성하고 이때 굴토된 흙은 동서쪽 저지대를 대규모 성토하여 궁성의 중심공간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에서는 자연지형을 절토·복토하여 궁

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7, 『익산 왕궁리』, 1989년부터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총 9책의 발굴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성관련 건물을 축조하기 위한 평탄대지를 조성한 동서석축 4곳이 확인되었다. 특히 확인된 동서석축이 일정한 비율로(2:1:2:1)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궁성의 내부 공간은 일정한 비례 원칙에 따라 계획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성벽은 궁궐을 보호하기 위한 궁장으로 동벽 492.8m, 서벽 490.3m, 남벽 234.06m, 북벽 241.39m로 동서벽의 길이는 거의 비슷하지만, 북벽이 남벽에 비해 약간 넓게 계측된다. 체성부의 폭은 3~3.6m이며, 내·외부에 보도 혹은 낙수물 처리를 위한 폭 1m 정도의 부석시설과 석렬시설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성벽의 너비는 약 10m에 이른다.

축조수법은 하부를 정지한 후, 장대석과 사구석을 이용하여 외면과 내면을 쌓고 내부에 토석 혼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왕궁의 공간 활용은 크게 왕실의 중심공간인 남측의 생활공간과 북동측의 후원과 북서측의 공방공간으로 구분된다. 왕실의 중심공간은 남측 중문과 일직선상의 정전으로 추정되는 대형건물지(건물지22)와 현 석탑 하부에서 확인된 건물지, 그리고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와적기단건물지(건물지10)와 정원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치상을 도입부(출입공간)-중심부1(행정관서)-중심부2(궁궐관련시설)-후미부로 구분하고 특히 대형건물지(건물지22)에서 출토된 “首府”名 인장와와 규모로 볼 때 내전이나 조회 등을 치른 정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궁궐내부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화장실 유구가 궁성 내부의 서북편에서 조사되었는데, 동서석축 배수로와 연결되어 일정량의 오물이 차면 석축배수로를 통해 서측 담장 밖으로 배출된 구조를 하고 있다. 모두 3기의 대형화장실이 확인되었는데 서측의 가장 큰 화장실의 규모는 동서 10.8m, 남북 1.7m로, 내부에서 확인된 기둥으로 볼 때 동-서 5칸, 남-북 1칸으로 깊이는 3.4m 내외이다. 특히 내부 벽면과 바닥면에는 방수 처리를 위한 점토가 발라져 있다. 화장실 내부에서는 목제품과 더불어 뒤처리용 막대, 짚신, 토

기편, 기와편이 출토되었으며 토양을 분석한 결과 회충, 편충, 간흡충의 기생충 알이 확인되었다.

제석사지는 원래 이곳은 帝石面이라는 행정구역명이기도 하지만, ‘帝釋寺’銘의 기와와 함께 백제시대의 와당이 발견되어 백제시대의 제석사지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⁸⁾. 이 사찰이 주목되는 이유는 『觀世音應驗記』에 백제 무왕대 익산 천도사실이 직접적으로 언급됨과 동시에, 이 사찰의 화재 기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석사지의 발굴결과를 보면 가람배치는 기본적으로 사비기의 백제 사찰과 동일하며 그 규모도 매우 컸음이 확인되었다⁹⁾. 그런데 목탑지와 금당지 사이의 서편에서 목탑 규모와 축조수법이 동일한 방형 건물지의 기초부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이 제석사가 왕실의 원찰이면서 제석신앙이 국조신앙과 결부된 관점에서 보면 이 방형 건물지는 시조를 모신 건물이었을 것이며 廟寺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⁰⁾. 한편 제석사가 소실된 이후 생겨난 폐기물들을 완벽하게 수거하여 인근에 매몰했던 것이 발굴조사에서 밝혀짐에 따라¹¹⁾ 관세음옹협기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무왕과 그의 왕비릉으로 전해오는 쌍릉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왕도 곧 공주나 부여가 아닌 익산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구조적 측면이나 출토유물은 논외로 하더라도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쌍릉 봉토의 규모는 직경 30m, 높이 5m이며, 왕비릉은 직경 24m, 높이 3.5m로서 쌍릉의 규모가 약간 크다. 그 규모 면에서는 능산리 왕릉급의 고분보다 오히려 대형으로 쌍릉이 왕릉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목관, 도제완, 옥제장신구, 치아 3점 등이며,

8) 黃壽永, 1973, 「百濟 帝釋寺址의 研究」, 『百濟研究』 4집.

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익산 제석사지 제2차 발굴조사 약보고』.

10) 최완규, 2011, 「백제말기 무왕대 익산천도의 재검토」, 『백제말기 익산천도의 제문제』, 원광대.

11) 金善基外, 2006, 『益山 王宮里 傳瓦窯址(帝釋寺廢棄場)發掘調查報告書』, 圓光大學校 博物館.

제석사 폐기장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됨으로서 『관세음옹협기』의 내용을 신빙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왕비릉에서는 도금관식금교구편, 관정, 금동투조금구 등이다. 특히 내부에서 발견된 목관에 사용된 목재는 高野檜(こうやまき)¹²⁾로서 능산리에서 출토된 목관과 같은 점도 이 피장자의 신분이 왕이나 왕비였음이 증명되고 있다¹³⁾.

한편 왕궁을 중심으로 서쪽 2km 정도 떨어진 신동리에서 소위 대벽건물이 발견되었다¹⁴⁾. 이 유구의 구조는 능산리 대벽건물지와 평면형태나 주변에 목책같은 시설이 있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다만 신동리에서는 앞서 지적한 대로 대벽건물지와 더불어 동일지역에 구조가 전혀 다른 일반적 성격의 백제시대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도 서로 달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동리유적의 대벽건물지도 정지산유적¹⁵⁾과 같이 天地神에게 제사를 지냈던 의례시설일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익산지역에는 금마 시가지에서 북쪽으로 인접해서 저토성¹⁶⁾과 오금산성¹⁷⁾이 축조되어 있는데, 저토성은 부소산성과 같은 축조수법을 채용하고 있고, 오금산성은 석축과 토석혼축으로 축조되었다. 이 두 성곽의 발굴결과 모두 백제시대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부여 부소산성과 같이 유사시에 피난성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익산지역은 군사 방어적인 천혜의 지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멀리 북으로는 금강이 자연 해자의 역할을 해내고, 가까이 동북으로는 노령 준령이 험준하게 자리잡고 있어 이곳에 미륵산성과 용화산성, 그리고 낭산산성

12) 斎藤 忠, 1992, 『日本考古學用語辭典』, 學生社.

高野檜은 침엽수의 일종인데 일본 紀州地方에서 九州地方까지 분포하고 있고 세계에서 一科一屬一種으로

일본에서만 산출되는 樹種으로 물에 강하고 부식이 잘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3) 최완규, 2001, 「익산지역 백제고분과 무왕릉」, 『마한 백제문화』 15집.

14)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6, 『익산 신동리 유적 -1,2,3지구』.

15) 국립공주박물관, 1996, 『정지산』.

16)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1, 『익산 저토성 시굴조사보고서』.

17) 전영래, 1985, 『익산 오금산성 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등 많은 산성을 배치함으로서 완전한 방어체계를 구비한 지역이다.

앞서 예시한 바와 같이 익산지역의 도성유적은 周禮 考工記의 "左祖右社面朝後市"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곧 익산은 고대 도성체계의 완전성을 잘 갖추고 있는 백제 왕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IV. 미륵사 창건과 왕도 익산

1. 미륵사 현황

백제시대의 사비 천도이후 창건된 거의 모든 사찰은 일탑식가람배치 곧 중문, 탑, 금당, 강당을 주로 남북 일직선상의 남향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미륵사는 중앙에 중원을 두고 동쪽과 서쪽에 각각 동원과 서원을 배치한 고대 불교국가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매우 독특한 3원식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륵사의 사람은 동원과 서원에는 석탑을 중원에는 목탑을 배치한 후, 각각의 탑 북쪽으로는 각각 금당을 세 곳에 두고 회랑을 돌린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를 보면 중원의 목탑과 금당은 동·서원의 석탑이나 금당보다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동일한 레벨에 위치한 동·서원보다 높은 기단위에 건축되었고, 동서의 석탑과 달리 아주 정교하게 판축된 기단 위에 목탑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강당이나 외부로 통하게 되어있는 동·서원의 회랑에 비해 중원의 회랑은 4면이 폐쇄된 형태로 돌려져 있고, 그 공간너비도 더 크기 때문에 동원이나 서원에 비해 더욱 신성하고 존엄한 공간이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원에는 백제의 전통적인 목탑을 배치하고 동·서원에서는 당시로서는 유래가 없는 석탑을 창안배치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각원 조성의 선후관계가 파악된다. 따라서 미륵사 가람에서는 중원이 중심이며 동원과 서원은 종적인 가람으로 기획되었고, 창건과정에서 가장 먼저 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은 이 사찰의 중심인 중

원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강당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출토된 기와에서는 을축(乙丑, 605년), 갑신(甲申, 624년), 정해(丁亥, 627년), 기축(己丑, 629년)명 등 간지(干支)가 새겨져 있어서 미륵사 창건이나 중수연대를 살필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미륵사 창건은 서탑의 사리봉안기에 나타난 기해(己亥, 639년)는 미륵사 창건연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미륵사 창건과 관련은 중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사리장엄의 내용은 서원 석탑에 관련된 것으로 국한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륵사 서탑의 사리장엄은 1층 십주석의 중앙에 설치된 네모난 사리공(한변 24.8cm, 깊이 27cm)에서 발견되었는데, 바닥 전면에는 두께 1cm의 판유리 1매를 깔고 그 위에 각종 공양품 505점이 정성스레 안치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금제사리봉안기로서 가로 15.5cm, 세로 10.5cm 크기의 금판으로 앞·뒷면에 한줄에 9자씩 총 194자를 새겼으며 특히 앞면에는 붉게 주칠하여 문자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백제 왕후는 당시의 최고 관직인 좌평(佐平)이었던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로서 매우 불심이 깊었는데, 이러한 왕비의 선심을 바탕으로 대왕의 안녕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기해(己亥, 639년) 정월 29일에 사람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했다는 발원문이다. 바로 이 사리봉안기의 내용이 미륵사 창건연대와 서동설화의 진위 논란에 대한 중심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미륵사 창건은 선화공주와 무관”, “서동설화는 허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미륵사 가람배치의 특성과 발굴결과 출토된 유물을 분석하고, 『三國遺事』 무왕조에 나타난 창건연기설화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리봉안기 내용이 미륵사의 창건에 대한 모든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미륵사는 세계유일의 삼원식 가람으로 그 중심 가람은 중원인 바, 창건과 관련된 내용은 중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탑 사리봉안기의 내용은 서원에 국한해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오히려

려 사리장엄의 대발견은 미륵사와 백제왕실, 무왕과 익산, 그리고 서동설화의 역사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미륵사의 새로운 해석

미륵사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삼국유사』 법왕 「금살조(禁殺條)」¹⁸⁾와 「무왕조(武王條)」¹⁹⁾에서만이 보인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살조에서는 왕흥사(王興寺) 창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왕흥사가 곧 미륵사임을 밝히고 있고, 무왕조에서는 미륵사 창건연기를 밝히고 있는데 이 외에도 미륵사가 국사(國史)의 내용을 인용하여 왕흥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왕흥사의 존재인데, 이 왕흥사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법왕 2년」²⁰⁾, 「무왕 35년」²¹⁾, 「의자왕 20년」²²⁾, 「태종 무열왕 7년」²³⁾ 등 4곳, 『삼국유사』에서는 「법왕 금살」, 「무왕」, 「태종 춘추공」²⁴⁾, 「남부여 전백제..」²⁵⁾등 역시 4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찰보다도 왕흥사의 빈번한 기록은 백제에 있어서 왕흥사의 위상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왕이 매번 배를 타고 분향을 했다는 기사에서 왕실과 깊은 관계속에서 왕흥사의 위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찰이다²⁶⁾. 그리고 두 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왕

18) 百濟第二十九法王諱宣。或云孝順。開皇十年己未卽位。是年冬。下詔禁殺生。放民家所養鷹之類。焚漁獵之具。一切禁止。明年庚申。度僧三十人。創王興寺於時都泗沘城。(今扶餘。)始立裁而升遐。武王繼統。父基子構。歷數紀而畢成。其寺亦名彌勒寺。附山臨水。花木秀麗。四時之美具焉。王每命舟。沿河入寺。賞其形勝壯麗。(與古記所載小異。武王是貧母與池龍通交而所生。小名薯。卽位後諡號武王。初與王妃草創也。)

19) 前略...卽王位。一日王與夫人。欲幸師子寺。至龍華山下大池邊。彌勒三尊出現池中。留駕致敬。夫人謂王曰。須創大伽藍於此地。固所願也。王許之。詣知命所。問墳池事。以神力一夜頽山墳也爲平地。乃法像彌勒三尊。殿塔廊廡各三所創之。額曰彌勒寺。(國史云王與寺。)眞平王遣百工助之。至今存其寺。(三國史云。是法王之子。而此傳之獨女之子。未詳。)

20) 二年 春正月 創王興寺 度僧三十人

21) 三十五年 春二月 王興寺成 其寺臨水 彩飾壯麗 王每乘丹 入寺行香

22) 二十年 六月 王興寺衆僧皆見 若有船楫隨大水入寺門 有一犬狀如野鹿 自西至泗河岸 向王宮吠之....後略

23) 七年 春正月 前略.... 五日 王行渡계灘 攻王興寺岑城

24) 六月。王興寺僧皆見如虹楫隨大水入寺門。有大犬如野鹿。自西至泗岸。向王宮吠之。

25) 前略.... 百濟王欲幸王興寺禮佛。先於此石望拜佛.....後略

홍사에 대한 주요 내용은 법왕 2년(600년)에 왕홍사를 창건하여 36년에 걸쳐 무왕 35년(634년)에 완성했다는 기록과, 백제의 멸망을 암시하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점에서는 두 사서의 기록이 일치하고 있다.

한편 『삼국유사』 법왕 금살조의 왕홍사 창건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 「明年庚申 度僧三十人 創王興寺於時都泗沘城 始立裁而升遐 武王繼統 父基子構 歷數紀而畢成 其寺亦名彌勒寺.....」에서 「創王興寺於時都泗沘城」의 해석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왕홍사를 그때 수도인 사비성에 창건했다.」 라 해석하여 왕홍사의 위치를 부여에 두고 있다²⁷⁾. 그러나 「왕홍사를 창건할 그 당시의 수도는 사비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올바른 해석인 것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왕홍사의 창건 당시의 수도와 완성 시점의 수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완성 시점의 수도는 익산에 비정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며, 법왕 금살조의 내용에서 익산 천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미륵사는 백제 무왕대 수도였던 익산에 건설되었던 왕업지홍사(王業之興寺)로서 왕업 곧 국가의 대업을 융성하게 하고자 염원했던 국찰로서 왕홍사였던 것이다²⁸⁾. 특히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봉안기에 의하면 왕실을 중심으로 국력을 기울여 건립한 국찰임이 또 다시 확인되었는데, 이는 당시 국가의 수도가 아닌 지역에는 불 가능한 대역사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미륵사 창건배경 및 의의

26) 전계주 21) 참조.

27) 왕홍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부여 부소산에서 바라볼 때 금강 건너편 규암리에 소재하는 폐사지를 지칭해 왔던 것이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 왕홍사 명의 고려시대의 기왓장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2007년도 이 폐사지를 발굴한 결과 목탑의 심초석에서 발견된 청동 사리기의 명문을 통해서 위덕왕 24년(577년)에 죽은 왕자를 위해 건립된 사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36년에 걸쳐 완성될 정도의 대규모 사찰도 아니며, 중창이나 개창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알려졌던 왕홍사에 대한 인식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28) 최완규, 2011, 「백제 무왕대 익산천도의 재검토」, 『백제말기 익산천도의 제문제』,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 국제학술회의.

백제는 한강유역에서 성장한 이후 475년 9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개로 왕이 전사하고 한성이 함락된 직후 급박하게 웅진으로 천도가 이루어졌다. 웅진기이후 왕실과 재지세력과의 대립과 긴장은 사비기에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사비천도는 팔성대족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성왕 전사 이후 이러한 협조적인 관계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538년 성왕 26년 새롭게 건설된 사비로의 천도를 단행하게 된다. 사비천도는 웅진천도와 달리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 계획된 것이었기 때문에, 내부 구획이나 외부로부터 침입에 대비하려는 나성축조 등 잘 짜여진 수도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사비천도를 통해 백제 중흥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성왕 역시 신라와의 관산성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 그 결과 백제의 정치세력 사이에는 사비천도와 관련된 신·구세력 간의 갈등과 특히 전쟁에 대한 책임론 등이 불거지면서 내부갈등은 불을 보듯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 사비천도이후 왕실의 정통성을 세우고자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한 것은 백제고지의 마한계 토착세력과의 갈등이 언제나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고 성왕의 전사이후 표면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위덕왕의 정신적 갈등²⁹⁾이나 혜왕, 법왕의 재위연간이 1, 2년밖에 되지 못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백제내부의 정국 혼란상황을 읽어 낼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백제 왕실은 중앙과 지방제도의 정비를 통해 왕권강화와 지방통치를 실천해 나가고자 했던 것으로 22부사의 설치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왕실의 이러한 노력도 정치적인 갈등과 혼란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왜 갑자기 법왕은 금살생령을 반포하고 불과 한 달 사이에 왕홍사를 창건하게 되는 것일까? 곧 두 사건 간에 분명히 깊은 상호관계가 내

29) 『日本書紀』 19, 欽明紀 16年 8月 百濟餘昌謂諸臣等曰 小者今願 奉爲考王 出家修道 諸臣百姓報言 今君王欲得出家修道者....後略

재되어 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왕홍사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불사건립을 통해 관산성 패전이후 귀족중심체제의 정국운영 체제에서 왕권을 신장하고자 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³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왕대에 창건된 왕홍사는 미륵사를 지칭하는 것이고, 미륵사와 같은 대찰을 창건하는데 있어서는 국가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총동원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왕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미륵사 창건이 법왕대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무왕 이전에 익산천도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왕 즉위년에 내려진 ‘금살생’ 명령이라 할 것이다³¹⁾. 이와 같이 법왕이 즉위하면서 곧 바로 금살령을 내린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아마 천도와 같은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온 백성이 모든 정성을 함께 모아 신성스럽게 천도를 단행하고자 했던 배경이 작용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³²⁾. 당시 백제사회는 천도와 관련하여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 많은 대립과 갈등³³⁾이 있었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로서 혜왕이나 법왕이 재위 1년 만에 사망하게 했던 요인이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그 해답은 익산천도를 통해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 익산으로 천도를 계획하게 되었을까? 앞서 설명했듯이 익산지역은

30) 노중국, 1988, 「武王 및 義子王代의 政治改革」,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31) 『삼국사기』, 백제본기 법왕조, 「冬十二月 下令禁殺生 收民家所養鷹鶲放之 漁獵之具焚之. 二年春正月 創王興寺 度僧三十人」

32) 삼국유사 법왕 금살조에 왕홍사 혹은 미륵사 창건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는 이 사찰의 건립에 앞서 국왕의 금살령으로 귀족은 물론 하부 백성까지도 이 일에 동참하도록 불교의 계율로서 포장된 소위 포고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천도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갈등을 제어하기 위한 법적인 안정 장치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이슬람국가에서 코란율법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듯이 고대 불교국가에서 불교경전에 의한 이러한 조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33) 천도를 둘러싼 왕실간의 갈등은 천도이전부터 익산천도이후는 물론, 무왕의 사후에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곧 무왕이 사후에 역대 왕들의 묘역인 부여 능산리에 안장되지 못하고 익산에 자리잡고 있는 점에서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준왕의 남친지로서 마한조기 청동유물과 철기를 공반하는 토광묘가 집중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며, 이후 마한의 고도로서 그 위상을 가지고 5세기 후반까지 분구묘가 지속적으로 축조되고 있었다. 따라서 마한의 상징적인 지역인 익산을 선택하여 천도를 단행함으로서 금강 이남의 마한계 세력을 아울러 왕권강화와 백제 중흥의 꿈을 펼치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법왕대에 미륵신앙을 방편으로 백제인의 민심을 한곳으로 모아 국가 대업의 융성을 기원하는 왕흥사 곧 미륵사를 익산에 창건하게 되는 것이다³⁴⁾. 법왕의 뒤를 이은 무왕은 선대의 위업을 이어 미륵사를 완성하고 익산천도를 단행하여 또 다시 백제 중흥의 꿈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IV. 미륵신앙과 전법성지 익산

1. 미륵신앙의 역사적 전개

미륵경전에 기술되어 있는 미륵신앙은 미륵보살이 석가 입멸 후, 56억 8천만년 후 도솔천의 수명이 다할 때 하늘에서 염부제인 지상에 내려와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한 후, 3회의 설법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미륵신앙은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으로 대별된다. 상생신앙은 죽은 후 도솔천에 올랐다가 이후 다시 미륵과 같이 하생하여 삼회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신앙이며, 하생신앙은 도솔상생과 관계없이 미래세계의 삼회의 설법에 만나려는 신앙형태를 말한다³⁵⁾. 따라서 미륵불은 당래불, 미래불로서 앞으로 오실 부처님이며, 오셔야 하는 부처님이다. 미륵불이 오신 세계는 대립과 갈

34) 최완규, 2009, 「고대익산과 왕궁성」, 『익산 왕궁리발굴 20주년 성과와 의의』, 주류성.

35) 김삼용, 1994, 「미륵신앙의 원류와 전개」, 『문산 김삼용박사 고희기념 -마한백제문화와 미륵사상-』.

등, 분열과 혼란을 청산하고 대자비의 광명을 비추어 미망의 어둠을 걷어내고 깨달음을 증득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륵신앙의 속성은 각 시대의 불확실하고 혼돈과 갈등의 시대에 민중과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혹세무민하여 민중을 현혹시키거나 사회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역사적으로도 왕조 교체기와 국가의 중흥을 꾀하고자 하는 집권자들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왕권확립을 꾀하는 등 통치기반의 근간이 되기도 하였다.

백제의 미륵신앙에 대해서는 미륵사 창건연기설화를 통해서 잘 살필 수 있다.

미륵사의 창건은 무왕과 그의 왕비인 선화공주가 미륵산 중턱의 사자사에 행차하던 중, 연못에서 미륵삼존이 출현하는 인연으로 전탑 랑무를 세곳에 두었다고 했는데³⁶⁾, 20여년간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삼원의 가람배치가 확인되었다. 용화보리수로 상징되는 용화산 아래에 미륵삼존을 모시는 3원의 가람은 미륵이 하생하여 보리수 아래서 3회 설법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하생신앙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백제 법왕대에서 무왕대에 걸친 미륵사 창건은 용화회상의 세계를 익산 땅에 실제로 구현하고자 했던 통치자들의 염원이 잘 반영되어 있다.

신라의 미륵신앙은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에 미륵존상이 봉안되었다는 기록에서 불교 공인 초기부터 미륵신앙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곧 흥륜사의 승 진자법사가 미륵상 앞에 나아가 미륵대성께서 화랑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기를 기원하여 화랑으로 출현했다는 것이다³⁷⁾. 따라서 신라에서는 미륵신앙과 화랑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화랑의 집단훈련과 수양을 통하여 국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였다. 신라의 화랑도가 미륵의 화현

36) 『삼국유사』 권제2, 기이제2, 「무왕」 조.

37) 『삼국유사』 권제3, 탑상제4, 「미륵선파 미시랑 진자법사」 조.

이라고 믿게하고 왕권지배계급이 이를 잡아 세움으로서 삼국 가운데 지리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던 신라가 마침내 삼국통일의 위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절박하고 불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미륵하신앙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⁸⁾.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백제의 미륵신앙은 면면히 이어져 진표율사에 의해 미륵신앙의 근본도량으로서 김제 금산사를 창건하게 된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주사의 미륵불 조성과 금강산 발연사를 창건하고 점찰법회를 열어 미륵신앙을 통한 새로운 종교운동을 전개해 나갔다³⁹⁾.

후삼국시대에는 태봉의 궁예나 후백제의 견훤이 모두 미륵의 출현으로 사칭하고 통일감정의 여세를 몰아갔던 것도 나말여초의 혼란기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려 태조 왕건은 구 백제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여 미륵불국토를 건설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개태사를 창건하고 미륵삼존불을 봉안하였다⁴⁰⁾. 이후 광종대에는 관촉사에 미륵불을 조성하는 등 왕실과 국가에서 특별히 미륵불국토 구현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불교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민간신앙으로서 미륵신앙이 전개되어 민중과 미륵신상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나갔다.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 아래에서도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불교의 민중화가 더욱 가속화 되어 갔는데, 구한말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민중화된 미륵신앙은 신흥종교의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된다. 곧 미륵신앙은 사회변혁의 이념체계로서 일익을 담당해 나갔다는데 역사적 의의를 간과할 수 없다.

38) 유병덕, 1994, 「원불교에서 본 미륵사상」, 『문산 김삼용박사 고회기념 -마한백제문화와 미륵사상-

39) 김삼용, 전계주 참조.

4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8, 연산불우조.

2. 원불교와 미륵사상

구한말에 들어서 한국 사회는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 되면서 매우 혼란과 갈등의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또한 새로운 질서체계를 요구하는 서학이 영입되기 시작했고, 이에 맞서 민족적 민중적 가치를 앞세운 신흥 종교의 발생을 촉진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신흥 종교는 당래불인 미륵불을 자처하고 나선 증산교이다. 강증산은 미륵불인 동시에 상제임을 자처하고 제자들에게 “나는 미륵불이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 미륵을 보라”하고 “금산사 미륵불은 여의주를 들었으나 나는 입에 물었노라”하며 아랫 입술 안에 있는 붉은 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9년 동안 소위 “천지공사”를 행했던 금산사 근처 용화동을 바로 미륵불의 회상인 용화도량이라고도 하였다. 증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미륵불임을 강조했고, 그래서 모든 증산교인들은 증산을 옥황상제임과 동시에 미륵불로써 신앙하고 있다⁴¹⁾.

이후 각종 미륵관련 종파들과 미륵을 숭상하는 또는 자처하는 인물들이 다수 출현하게 되는데 ①미륵으로 나타날 인물을 찾으려는 태도 ②미륵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선택된 땅을 찾으려는 태도 ③미륵하생의 시기를 정하고 기다리는 태도 ④미륵이 하생하기 위해서 세상은 극도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태도 ⑤현실을 부정하면서 여행을 찾으려는 태도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⁴²⁾.

원불교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상세계로서의 후천개벽사상과 관련된 당래불 신앙인 미륵신앙과 깊은 함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⁴³⁾. 대종경 전망품에 보면 “미륵불이라 함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들어나는 것이요, 용화회상이라 함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處處佛像 事事佛供

41) 정순일, 2005, 「원불교와 미륵신앙」,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34.

42) 유병덕, 1987, 「일제시의 미륵하생신앙」 『한국미륵신앙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정순일, 전계주
재인용.

43) 김삼용, 전계주 참조.

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라”⁴⁴⁾ 하여 미륵에 의한 이상세계 즉 용화세계는 일원상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세계로 볼 수 있다.

한편 종래의 미륵신앙과는 상당히 다른 시각의 새로운 미륵신앙이라고 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곧 장적조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어느때나 그러한 세계가 돌아오겠습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차차 되어지고 있나니라” 정세월이 여쭙기를 “그 중에서도 첫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되나니라”⁴⁵⁾ 하여 존재의 근원인 법신불의 진리를 깨치면 시공을 초월하는 지혜광명과 생명현상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수기를 받은 존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고루 해당하는 것이며, 그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이 용화회상의 주인, 곧 미륵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한 사람의 영웅 출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영웅이 되며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평등의 미륵사상이라 할 만하다⁴⁶⁾.

용화회상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박사시화(朴四時華) 여쭙기를 “지금 어떤 종파들에서는 이미 미륵불이 출세하여 용화회상을 건설한다 하와 서로 주장이 분분하오니 어느 회상이 참 용화 회상이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 비록 말은 아니 할지라도 오직 그 회상에서 미륵불의 참 뜻을 먼저 깨닫고 미륵불이 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자연 용화회상이 될 것이요 미륵불을 친견할 수도 있으리라”⁴⁷⁾하여 그 정의가 매우 독특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박 사시화가 지적하고 있는 어떤 종파는 증산을 비롯한 여러 미륵종파를 일컫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대종사는 다른 종파와의 차별화 곧

44) 『원불교교전』 대종경 전망품 17,18 참조.

45) 『원불교교전』 대종경 전망품 16, 참조.

46) 정순일, 전계주 참조.

47) 『원불교교전』 대종경 전망품 17, 참조.

48) 정순일, 전계주 참조.

영웅 중심의 용화회상이 아닌 평등한 용화회상이야말로 진정한 용화회상으로 보고 있는듯 하다.

그리고 용화회상의 모습에 대해서는 서대원이 여쭙기를 “미륵불 시대가 완전히 돌아와서 용화 회상이 전반적으로 건설된 시대의 형상은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시대에는 인지가 훨씬 밝아져서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허실(虛實)과 진위(眞偽)를 분간하여 저 불상에게 수복(壽福)을 빌고 원하던 일은 차차 없어지고,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망라하여 경우와 처지를 따라 모든 공을 심어, 부귀도 빌고 수명도 빌며, 서로서로 생불(生佛)이 되어 서로 제도하며, 서로서로 부처의 권능 가진 줄을 알고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되며, 회상을 따로 어느 곳이라고 지정할 것이 없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는 곳마다 회상 아님이 없을 것이라, 그 광대함을 어찌 말과 글로 다 하리요. 이 회상이 건설된 세상에는 불법이 천하에 편만하여 승속(僧俗)의 차별이 없어지고 법률과 도덕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며 공부와 생활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고 만생이 고루 그 덕화를 입게 되리라.”⁴⁹⁾라 하여 소태산이 말하는 용화회상이란 종교의 울을 벗어난 원숙한 종교요, 상극이 사라진 상생의 세계라 할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가 제시한 원불교의 “미륵용화회상관”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기준으로 현재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과 아울러 미래의 이상적 세계건설의 표준적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태산 대종사가 제시한 미륵회상관은 영겁회귀의 초시간적 진리를 현시한 것이며, 이 시대에서 미래로 지향할 현대인의 실천 강령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50).}

3. 왕도 익산과 원불교

49) 『원불교교전』 대종경 전망품 18, 참조.

50) 유병덕, 전계주 참조.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익산지역은 백제시대에 미륵사 곧 왕홍사 창건을 통하여 흘어진 당시 민심을 수습하여 백제 중흥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 땅이었다. 그것은 국가의 중흥을 미륵신앙을 방편으로 해서 부여계 왕실과 재지 마한계의 민중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진표율사의 금산사 창건이나 백제의 부흥을 이루고자 했던 견훤의 후백제 건국으로 이어지고, 이후 조선후기에는 증산교를 비롯한 많은 신흥종교가 금산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과 맥락을 같아 한다.

그렇다면 소태산 대종사는 어떠한 법연으로, 왜 익산을 전법성지로 택해 천여래 만보살을 모으시고 일원의 심인을 찍어 주세불의 법력으로 제생의 세의 큰 경륜을 펼치시고 열반에 드셨을까? 그것은 선회록에서 그 일단을 살필 수 있다. 원기 4년 법인 성사를 마치고 대종사는 김제 금산사에서 몇 개월 휴양하신다. 금산사는 당시 그들의 안목에서는 사교의 집합체였다. 그것은 강증산 선생이 열반시에 "내가 죽으면 금산사 육장불에 의지하여 미륵불로 출세하리라"는 예언 때문이었다. 대종사는 이곳에서 짚신을 삼으면서 수양에 전념하시던 중 강증산 교인들 몇 사람과 친분을 맺으니 이들이 곧 김제 인연들이었다. 훗날 서중안에 의해 익산 총부의 대지를 마련하게 된 기연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⁵¹⁾. 여기에서 보면 강증산의 사후 미륵불로 출세라는 예언이 소태산 대종사로서는 그의 미륵사상과는 많은 거리를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소태산의 미륵관은 대종경 전망품 17에서 알 수 있듯이 영웅주의적인 미륵관이 아니라 평등적인 미륵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 금산사 인연에서 맺어진 서중안을 비롯한 교인들은 증산의 미륵관 보다는 소태산 대종사의 미륵관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증산교의 본산에서 다른 법연을 찾게 되

51) 『원불교교전』 선회록 21 교단수난장 3절, 참조.

는 커다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원기 9년 3월에 소태산 대종사 서울에서 이리를 거쳐 전주(全飲光집)에 오시니 각 처에서 다수의 신자들이 모였다. 이에, 서중안 등 7인(별록 5)이 발기인이 되어 [불법연구회] 창립 준비를 토의할 제, 대종사, 총부 기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리 부근은 토지도 광활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무산자(無產者)들의 생활과 각처 회원의 내왕에 편리할 듯 하니 그 곳으로 정함이 어떠하냐” 하심에, 일동이 그 말씀에 복종하였다. 또한 창립총회 개최 장소는, 이리 부근 보광사(普光寺)로 예정하고 총부 건설지는 후일 실지 답사 후 확정하기로 하였다⁵²⁾. 이후 창립총회 후, 대종사, 각지 대표를 데리시고 이리 부근을 일일 순시하여 총부 건설의 기지를 택하시더니, 원기 9년(1924·甲子) 8월, 전라북도 익산군 북일면 신풍리(全羅北道益山郡北一面新龍里 現裡里市新龍洞)에 그 터를 확정하시었다⁵³⁾. 여기에서 보면 소태산 대종사는 이리 부근의 광활한 평야와 교통의 편리함이 총부건설의 외적인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불교가 지향하는 생활불교의 현실 지향적인 실천 강령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익산지역이 용화회상의 본령임을 이미 주지하고 있었음도 살필 수 있는데, 대종사께서 “미륵산 아래에 미륵회상·용화회상·일원회상이 열리며 팔만 구 암자가 들어선다.”고 하셨는데, 팔만 구 암자가 들어선다 함은 수많은 가정과 기관과 교당에 일원상 부처님을 봉안함이라, 그대들은 여기에서 천불 만성이 발아하고 억조창생의 복문이 열려 무등등한 대각도인과 무상행의 대봉공인이 많이 나오도록 하라.⁵⁴⁾ 그리고 정산종사도 익산지역의 미륵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화산 주령에 미륵산 주봉으로 뻗어내려 이 선원이 이루어졌고 역룡으로 올라

52) 『원불교교전』 교사 2편 회상의 창립, 제1장 새회상의 공개, 1,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53) 『원불교교전』 교사 2편 회상의 창립, 제1장 새회상의 공개. 2, 총부기지의 확정과 건설.

54) 『원불교교전』 대산법어 제 14 개벽편 18장.

가 총부 터를 이뤘으니 오래지 아니하여 총부와 선원은 한 마을이 될 것이다." 55)

익산 총부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대종사 익산(益山)에 총부를 처음 건설하실 제 몇 간의 초가에서 많지 못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지금 우리 회상이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여 보라." 권대호(權大鎬) 사뢰기를 "못자리 판과 같나이다." 다시 물으시기를 "어찌하여 그러한고." 대호 사뢰기를 "우리 회상이 지금은 이러한 작은 집에서 몇십 명만 이 법을 받들고 즐기오나 이것이 근본이 되어 장차 온 세계에 이 법이 편만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다. 저 넓은 들의 농사도 좁은 못자리의 모 농사로 비롯한 것 같이 지금의 우리가 장차 세계적 큰 회상의 조상으로 드러나리라. 이 말을 듣고 웃을 사람도 있을 것이나, 앞으로 제일대만 지내도 이 법을 갈망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몇 십년 후에는 국내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되고, 몇 백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될 때에는 나를 보지 못한 것을 한하는 사람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그대들 백명 안에 든 사람은 물론이요 제일대 창립 한도 안에 참례한 사람들까지도 한 없이 부러워하고 숭배함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익산을 총부로 선택하게 된 법연은 이 지역에 대한 미륵신앙과 관련된 깊은 이해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원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백제의 미륵사의 창건 배경이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이후 발생된 사비천도와 관련된 왕실과 귀족간의 갈등, 남부여로 국호 개칭에서 비롯된 왕실과 재지 마한계 세력간의 갈등, 전쟁 책임론에 대한 공방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앞서 지적하였다. 그 해결책

55) 『원불교교전』 한울안 제 1편 법문과 일화, 6, 돌아오는 세상 81절.

으로서 백제는 법왕대 부터 익산에 미륵사 건립을 통한 미륵신앙을 방편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백제 중흥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원불교가 태동할 당시의 한반도 정세 역시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한민족은 매우 불안한 위기의식이 고조된 시기였다. 따라서 새로운 희망의 출현, 다시 말하면 미륵의 출현을 강력하게 원하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태산 대종사가 지향했던 미륵은 새로운 영웅출현이 아닌 누구나 미륵이 될 수 있는 평등한 용화회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불교의 미륵세계관이란 오늘날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맞닿아 있고, 그 역사성은 백제시대 미륵사 창건의 그 정신과 통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V. 맷음말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먼저 익산지역은 마한의 고도라고 각종 문헌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최근 고고학 자료가 증가되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곧 미륵산에서 모악산에 이르는 지역에 남겨진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토광묘집단이 그것이다. 이들 집단은 마한 성립의 주체가 되었고, 백제 영역화 이후에도 그들 전통의 분묘를 고집스럽게 지속해온 익산의 전통세력이다. 마한고도의 자부심과 전통을 간직해온 이들은 백제말기 무왕대에 왕도로 자리잡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백제의 중앙문화를 수용할 정도로 강한 자긍심을 지켜낸 선조들이다.

백제는 웅진에서 사비로의 천도를 둘러싼 갈등과, 남부여로의 국호개칭에서 짐작되는 마한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토착세력과 출자를 둘러싼 갈등은 성왕의 전사이후 그 정점에 이르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덕왕이 출가를 결심할 정도로 복잡한 정치상황과 혜왕 법왕

의 1~2년의 짧은 재위기간에서 당시의 위기상황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백제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해답으로 마한의 고도, 곧 익산에 천도가 단행되었다고 생각된다.

먼저 백제 중흥을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의 대동단결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국가의 중흥을 위한 왕홍사 곧 미륵사의 창건인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미륵신앙을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왕홍사의 사찰명을 미륵사라 칭했는데, 현재 익산 미륵사가 그것이다. 결국 새로운 왕도 익산에 창건된 미륵사는 백제 중흥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편 무왕과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와 미륵사 연기설화를 담고 있는 ‘서동설화’는 인간 평등의 휴머니즘을 바탕에 두고 있다. 또한 미륵하생신앙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발굴조사결과를 통하여 밝혀진 3원식 가람배치에서 증명되고 있다.

미륵신앙 가운데 특히 하생신앙은 불확실하고 혼돈과 갈등의 시대에 등장하여 민중사회에 희망을 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혹세무민하여 더욱 사회를 도탄에 빠뜨리는 경우도 역사적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미륵사 창건이후 미륵신앙의 맥락이 면면히 흘러 금산사에 이어지고 조선후기에는 민중화된 신앙을 중심으로 많은 신흥종교가 탄생했다.

증산교를 비롯한 신흥종교들이 영웅 출현 중심의 미륵세계관이라면 원불교에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평등 미륵세계관을 두고 있음이 교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에 이른 사람 모두가 용화회상의 주인으로 미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바로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로 지향해야하는 현대인의 실천 강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가 익산에 전법성지인 총부를 두게 된 것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비롯되는 미륵하생신앙의 법연과 맞닿아 있다고 보여진다. 바로 백제 시대에는 왕권을 비롯한 최고 권력집단에 의해 익산에 정치적인 용화세계 건설이 목적이었다면, 대종사께서는 민중으로부터 비롯되어 각자가 주인이 되는 정신적인 용화세계를 건설하고자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익산은 소통과 화합의 상징적인 땅으로,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해지도록 하는 못자리판으로서 위치를 미륵사과 원불교와의 법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종사께서 처음 익산 전법성지를 건설하실 때 못자리판과 같이 시작한 회상이 전 세계가 이 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셨다. 이는 곧 미륵사지를 비롯한 왕도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세계에서 유일한 최고 최대의 미륵도량인 전법성지가 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주목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따라서 전법성지 익산을 천불 만성의 메카로서 세계적인 성지가 될 수 있는 위상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